

인벤티지랩, 위고비·마운자로 추적 요요현상 줄어든 비만치료제 ‘주목’

美서 ‘IVL3021·3024’ 성과 발표
1회 투여, 우수한 체중감소 효과
장기적 체중감소 유지 전략 확인

인벤티지랩이 개발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세미글루타이드를 월 1회 투여한 결과, 매일 맞아야 하는 위고비 보다 체중 감량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사 중단 후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이 줄어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제84회 미국당뇨병학회(ADA 2026)에서 장기지속형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IVL3021’ 및 ‘IVL3024’의 연구 성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장기지속 기술 구현을 넘어, 약물 노출도와 비만 개선 효과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정량적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이다.

세미글루타이드 기반 월 1회 장기지속형 주사제(LAI)인 IVL3021은 고지방식이(DIO) 비만 랫드 모델 평가에서 용량 의존적인 체중 감소 효과를 명확히 입증했다. 특히 연구 결과, 월 1회 투여만으로 체중 감소 효과가 지속되었으며, 위고비

반복 투여군 대비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체성분 분석 및 조직병리 평가 결과, IVL3021 투여군에서는 지방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며 지방세포 크기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혈중 간수치 및 중성지방 수치 개선도 함께 확인돼 지방간 및 지질대사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목할 점은 장기 유지 치료의 가능성이다. 비만 치료제는 투여를 중단하면 즉시 감소된 체중의 50% 이상이 다시 증가되는 요요 현상이 보고되어 있으며 따라서 체중 감소를 유지하는 치료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위고비 투여 후 IVL3021로 전환하는 치료 전략을 적용하였고 IVL3021 전환군에서 체중 감소가 시험 종료까지 효과적으로 감소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만치료제의 장기적인 체중 감소 유지 전략으로서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함께 공개된 차세대 파이프라인 ‘IVL3024(티르제파타이드 기반)’의 미니피그 약동학(PK) 평가 데이터도 주목받았다. IVL3024는 단회 피하 투여 후 2개월의 평가 기간 동안 초기 방출없이 지속적인

고 안정적인 약물 노출을 유지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IVL3024가 차세대 GLP-1/GIP 이중 작용제 기반의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도약할 충분한 기술적 경쟁력을 갖췄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기반이 된 ‘IVL-드러그플루이딕(DrugFluidic)’ 플랫폼은 50% 이내의 펩타이드 약물 탑재 및 90% 이상의 우수한 약물 방출을 균일한 입자 크기 분포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마이크로플루이딕스 핵심 기술이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이번 ADA에서 공개된 데이터는 당시의 플랫폼 기술이 실제 비만 치료 효과와 유지요법의 임상적 수요를 완벽히 충족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세미글루타이드 장기지속형 주사제 임상 개발을 위해 내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다중 타겟 GLP-1 및 아말린 기반의 비만 치료제들에 대한 장기지속형 연구 개발을 위한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위해서 바로 이어지는 BIO US 2026에서 예정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사업화 논의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이사(가운데)와 관계자들이 지난 5일 미국 뉴저지 소재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에서 열린 ‘SK Life Science LinX’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SK바이오팜, K-바이오 美 진출·성장 지원

美에 ‘SK 라이프사이언스 링스’ 개소

SK바이오팜은 지난 5일 국내 유망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현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 ‘SK 라이프사이언스 링스(LinX)’를 미국 뉴저지 소재 자회사인 ‘SK 라이프사이언스’ 내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LinX는 총 160평 규모로 공용 공간 120평, 개별 집무실 10개, 회의실 등 현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갖추었으며, 아시아(East)의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과 북미(West)의 선진 시장 및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K-바이오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가치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명칭의 ‘X’는 교류(eXchange)·확장(eXpansion)·기회 발굴(eXploration)을 상징한다.

LinX에서는 KOTRA가 주도하는 바

이오 분야 협력 컨소시엄의 ‘K-바이오 글로벌 이노베이션 링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림대학교가 운영하는 지역 창업 브랜드 스테이션(Station)C가 참여를 확정했으며, 타 국내 기관과도 참여를 논의 중이다. 컨소시엄은 현지 정착 지원, 법률·특허 자문, 현지 투자자 연결 등 미국 진출 초기 안착을 위한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LinX 개소는 K-바이오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그간 SK바이오팜이 강조해 온 ESG 철학을 미국 현지에서 직접 실현하는 글로벌 상생 사례로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KOTRA 등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적극 알리는 한편, 오는 6월 중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바이오학과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공식적인 입주 사 모집을 시작한다.

/이세경 기자

그라비티, 카이스트 기술 더한 ‘K-삼푸’ 선봬

폴리페놀팩토리 ‘신원료 기술 발표회’
해양 PDRN 유효성분 ‘잔류기술’ 구현
카이스트 ‘코아세르베이트’ 제형 개발

과학 혁신 기반 스타트업 폴리페놀팩토리가 세계 최초로 삼푸 시장에서 해양 미세조류를 활용한 ‘비건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상용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뷰티 시장에 K뷰티테크를 확산한다.

폴리페놀팩토리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원료 기술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해양 미세조류 유래 PDRN 상용화의 핵심은 유효 성분이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잔류 기술’의 구현이다.

PDRN은 항염증, 성장인자 분비 촉진 등을 유도하는 재생 원료다. 다만 수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삼푸 등 세정제에 넣으면 물에 쉽게 씻겨 두피와 모발에 흡수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폴리페놀팩토리를 창업한 카이스트 화학과 이혜신 석좌교수는 ‘코아세르베이트’ 제형을 개발했다.

코아세르베이트는 삼푸를 행구릴 때 PDRN 성분은 두피 표면, 모공, 모발에 남아 작용하는 고기능성 제품을 설계하는데 쓰인다. 수용성이지만 물에 씻이거나 씻기지 않도록 ‘PDRN과 폴리페놀 융합 기술’이 집약됐다. 폴리페놀이 PDRN 전달체 역할을 하는 복합 구조를 갖췄다. 실제로 폴리페놀은 천연 항산화 성분이며 분자 구조상 주변 물질과 강력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지녀 천연 접착제로 알려졌다.

해양 PDRN이라는 원료 확보에도 독자 기술이 반영됐다. 오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주 바다에서 채집한 미세조류



이혜신 폴리페놀팩토리 대표(왼쪽)와 정성진 책임 연구원(오른쪽)이 해양 미세조류 유래 PDRN을 설명하고 있다. /폴리페놀팩토리

를 단일 균주 형태로 순수 배양하는 공정을 완성했다. 그 결과, 이 해양 PDRN과 불순물의 흡수 파장 비율을 뜻하는 흡광도 측정에서 1.97이라는 기록이 확인됐다. 2에 가까울수록 고순도다.

이 교수는 “흡광계 수치뿐 아니라 효능 검증에서도 해양 PDRN의 상처 치유 촉진 능력이 연어 대비 약 60% 더 우수했다(100ppm 농도 기준)”고 설명했다.

폴리페놀팩토리는 원천 기술과 원료를 바탕으로 K뷰티 사업 기반도 다진다.

기능성 헤어케어 브랜드로 ‘그라비티’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 국내 공식 출시 후,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 일본 대표 온라인채널 라쿠텐, 일본 뷰티매장 리메이크, 대만 모모호스핑 등에 입점해왔다. 올해 들어 프랑스쁘랭팡 백화점을 통해 유럽으로도 진출했다.

폴리페놀팩토리 최성식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그라비티 신제품 ‘PDRN 헤어 리커버리 삼푸’는 초도 물량 4만 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0만 개 생산, 3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매출의 7.5% 수준을 차

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올해 총 매출 목표는 약 4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 현장에는 국내외 산업계도 함께해 국산 기술 상업화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폴리페놀팩토리는 지속 가능한 기술과 원료가 기업에 부담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이정표라며 산업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대만 포모그룹의 박동섭 포모사코리아 대표는 “그라비티는 이미 대만 현지에서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얻고 있다”며 “K뷰티 기술과 세계적 유통망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은 “기존 가성비 중심의 K뷰티 시장에 압도적 기술을 가진 벤처가 합류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폴리페놀팩토리는 지난 2023년 카이스트 교원 창업으로 설립됐고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젊은 연구진으로 구성됐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LG생활건강 ‘CNP’, 콘텐츠로 동남아 공략

베트남 인플루언서 톤 팜 초청
CNP 브랜드 행사… K더마 입지 다져

LG생활건강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CNP’가 디지털 콘텐츠 기반 협업을 강화하며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LG생활건강은 최근 베트남 인플루언서 톤 팜을 초청해 CNP 브랜드 행사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톤 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틱톡에서 약 4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크리에이터다.

이번 방한에서 톤 팜은 LG생활건강 본사, LG사이언스파크 연구소, 뷰티 편집샵, 피부과의원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K더마 제품과 기술을 체험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톤 팜은 해당 일정 동안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계정에서 직접 촬영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글로벌 팬들과 실시간 소통하며 K뷰티를 알렸다. CNP는 현지 소비자와 접점을 늘리며 브랜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후, 피부 특성 등을 적극 반영한 제품군을 구축해 고효능 고급 K더마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앞서 톤 팜과 함께 선보인 ‘프로폴리스 트리트먼트 앰플 에센스’도 브랜드 주력 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CNP의 올해 1분기 베트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몰’ 여름 할인행사

‘서머 아모레 세일 페스타’ 진행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 채널에서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3일까지 자사 공식 온라인몰 아모레몰에서 ‘2026 서머 아모레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짜릿한 여름 이야기’를 주제로 꾸며진다. 75종의 기획 상품과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 마리오 갤럭시와 협업한 굿즈를 선보인다. 슈퍼마리오 자동 우산, 요시 보냉백, 캠핑 의자, 키링 등 3종 구성은 한정판으로 내놓는다.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전개한다. 매일 아모레몰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10초 랜덤박스’, 라이브 방송을 통한 ‘릴레이 브랜드 데이’, 친구를 추천하고 함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페스타 소개 미션’ 등이 이어진다.



‘2026 서머 아모레 세일 페스타’ 전용 굿즈 3종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이커머스 부문 김경연 부사장은 “아모레 세일 페스타는 연 2회만 진행되는 아모레몰 대표 행사로 매해 새로운 굿즈와 볼거리, 이벤트를 준비해왔다”며 “아모레 세일 페스타가 특별한 쇼핑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